

학개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깊은 회의(skepsis)에 빠져 있었다.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릴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귀환하고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려 하자 대적들이 벌 떼처럼 들고 일어나 성전재건공사 방해공작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상황도 더 나아지지 않았다. 이때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전공사를 하도록 촉구한다.

I. 제목

저자의 이름을 따서 학개라고 부른다. 그 이름의 뜻은 축제 라는 뜻이다. 학개가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의 한 시기에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II. 저자와 기록 연대

1) 저자: 본 서의 저자는 선지자 학개이다.

그는 포로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보다 먼저 활동했다. 에스라는 스가랴와 동시대 인물로 그들이 함께 사역하며 성전 재건을 독려했다(슘 5:11; 슘 6:14). 이들 두 선지자들은 유대 백성들뿐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였다. 학개에 대해서는 그가 주전 536 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새로이 정직한 유대 거민의 첫 선지자라는 사실 이외에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2) 기록 연대: 에스겔처럼 자신의 사역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하였기에 의심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 구약의 모든 책 중에서 오직 본 서만이 비평가들의 비평에서 벗어나 정경으로서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 그것은 학개 선지자 자신의 작품이며, 그가 제시하고 있는 연대의 신빙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메시지는 다리오 2 년 엘룰월 1 일에 전해졌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은 해 티쉬리월 21 일에 주어졌고, 셋째와 넷째 메시지는 같은 해 치슬렘월 24 일에 주어졌다. 따라서 이 네 개의 설교는 약 3 개월 동안에 주어진 것이다. 이 예언들은 정확하게 바벨론 왕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Darius Hystaspes), 즉 다리오 재위 2 년인 주전 520 년에 주어졌다. 그러므로 본 서의 기록 연대는 주전 520 년이라 할 수 있다.

학개의 사역은 1:1 에 기록된 대로 다리오 왕 2 년(주전 520 년/521 년)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유대인이 포로에서 돌아온 뒤(주전 538 년), 대략 16 년이 지난 후이다. 학개는 2 차포로들이 귀환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백성들에게 성전공사를 하도록 설교를 통해서 촉구했다. 학개의 설교는 네 번으로 그 기간은 대략 4 개월 정도이다. 따라서 학개서는 주전 520 년 8-12 월경에 주어진 본문이다.

- 1:1 다리오왕 2 년 6 월 1 일(주전 520 년 8 월 29 일)
- 2:1 다리오왕 2 년 7 월 21 일(주전(520 년 10 월 17 일)
- 2:10 다리오왕 2 년 9 월 24 일(주전 520 년 12 월 18 일)
- 2:20 다리오왕 2 년 9 월 24 일(주전 520 년 12 월 18 일)

III. 학개서의 기본 구성

학개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 하나님의 성전 재건 촉구 (1:1-2:9) 과 2) 성전 재건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 (2:10-2:23) 으로 나눈다. 먼저 1) 하나님의 성전 재건 촉구는 (1) 성전 재건 재개 촉구 (1 장)으로 성전 재건 지연을 책망한다. (2) 새성전의 영광 (2:1-9) 으로 성전 재건 격려한다. 또한 2) 성전 재건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은 (1) 현세적인 축복 약속 (2:10-2:19) 으로 순종에 대한 축복과 (2) 미래적인 축복 약속 (2:20-23)은 스킨바벨의 축복으로 마친다.

IV. 주제와 기록 목적

- 1) 주제들: 학개는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과 성전 예배 회복에 같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는 나태한 가운데서 일어나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파하였다. 성전 건축이야말로 학개가 가진 관심의 중심이었고, 그가 설교한 모든 것의 초점이었다. 그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그의 전에 우선권을 둘 때에 그들이 받을 보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역설하기도 했다. 학개서의 주제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구하면, 현재의 가난과 실패는 끝나고 복된 번영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약에 얼마만큼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 2) 기록 목적: 학개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예언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백성들이 영적인 무관심으로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있었던 시기이다. 백성들은 모두가 낙담하여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적 질병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학개는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앞세울 때는 언제나 상황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일깨운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귀환 후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일은 성전 재건이었다. 이것은 70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배운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신본주의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전 재건이 14 년이나 중단되었던 것은 큰 위기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지난 14 년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만이 자기 백성을 지키는 일이며, 성전 재건만이 유일한 일임을 주장했다. 본 서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백성들을 독려하여 14 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축하여 완성하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백성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학개의 주제들은

- (1)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 (2) 하나님은 당신과 자기 백성을 훼방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 (3)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 보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 (4)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대로 거운다
- (5) 성도는 자기 부인과 반성을 통해서 더욱 더 성숙해 진다.

V. 학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 1)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성전
- 2)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 3) 스투바벨의 영광을 취하실 그리스도

VI. 학개서의 핵심 단어, 핵심 장, 핵심 절

- 1) 핵심 단어: 여호와와의 전
- 2) 핵심 절 : 2:9
- 3) 핵심 장 : 2 장